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노인유사체험이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the Senior Simulation Program on Aging Anxiety in Nursing Students

정혜선*, 한종숙**, 김정희***

청주대학교 간호학과*,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Hye-Sun Jeong(hsjeong@cju.ac.kr)*, Jong-Sook Han(jshan@cau.ac.kr)**,
Jung-Hee Kim(junghee@inha.ac.kr)***

요약

간호대학생 56명에게 실시한 노인체험복 경험과 소감나누기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 노인유사체험은 대체로 청년기의 대학생에서 노화불안을 구성하는 4개의 요인 점수를 상승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늙으면 주위의 친구들이 사라질까 두렵다는 항목에서 유일하게 노화불안 정도가 상승하였다. 체험 후의 소감나누기 활동은 노인에 대한 두려움 요인의 전체 점수와, 노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는 항목과 나이가 많은 노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항목에서 노화불안 감소를 보여 노화불안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중심어 : | 노인유사체험 | 노화불안 | 간호대학생 |

Abstract

This quasi-experimental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he a senior simulation program and following group discussion on the anxiety about aging. The senior simulation program did not raise the level of four factors of the anxiety about aging. The item of fear of losing friends when becoming old was the only significant one with increased level of anxiety. Discussion session for sharing the simulation experience revealed a positive effect of decreasing anxiety level in the factor score of fear of old people, the item of liking getting together with elders, and the item of liking to do something for elders. With the help of information technology

■ keyword : | Senior Simulation Program | Aging Anxiety | Nursing Student |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비율 증가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이 아니더라도 간호현장 어디서나 노인대상자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간호교육기관은 노인대상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노인간호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한편, 미래 노인간호의 주요 인적자원인 간호대학생은 노인관련 지식수준은 낮았고[1], 노인에 대한 흥미는 많지 않았으며[2], 노인간호를 선호하는 경우도 적은 것으로[3] 보고되었다. 또한 대학생은 노인에 대해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4], 이들의 노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적 중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노인을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상자에 대한 경험[5][6]을 들 수 있으며 노인유사체험은 노년기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인초기 학생들을 위한 노인간호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노인유사체험은 특수하게 제작된 옷을 입고 지정된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체적 측면의 노화를 경험할 수 있어서 체험자의 노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돕는다[7-9]. 대상자에 대한 진정한 공감을 통해 그 대상에 대한 태도가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10], 간호대학생의 노인유사체험은 공감적 이해과정을 거쳐 태도변화로 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노인 대상자에 대한 이해 증진은 물론 태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익한 학습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유사체험에 관한 선행연구는 참여자의 노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돕고, 미래를 조망하게 하였으며, 노인 및 노인에게 요구되는 시설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는 등[7-9]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였다. 이에 더하여 공감적 이해를 통해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일부 연구결과[8][11][12]에 비추어 볼 때 노인에 대한 행동의 변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노인유사체험의 긍정적 효과와는 대조적으로 참가자들은 노화에 대한 불편감이나 두려움을 보이기도 하여[7][8][13-15] 노인유사체험이 반드시 순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체험으로 인한 불안이나 두려움은 긍정적인 효과까지 감소시킬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반영하여 체험에 앞서 갑작스런 노화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화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14]. 그러나 체험의 효과확산 방지를 위해 연구참여자들과 진행을 보조하는도우미 사이에 의사소통을 금지하고 있어[11][14] 체험자들은 노화체험으로 인한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자신만의 경험으로 인식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노인유사체험을 통해 노인과 노화에 대한 진정한 공감적 이해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자 한다면 노인유사체험의 긍정적인 효과는 강화시키면서 부정적인 효과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들은[12][13] 노인유사체험이 끝난 후에 소감을 나눌 수 있도록 토론시간을 충분히 가질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러한 배려는 부족한 실정이고, 노인유사체험 후에 소감을 작성하게 하여 참가자의 경험을 분석하기는 했지만 이를 타 경험자와 공유하지는 못하였다[7][8][14]. 만약 노인유사체험 참가자들이 노인유사체험 후 느낀 점을 다른 참가자와 공유할 수 있다면 자신의 느낌이 일반적이며, 두려움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자신만이 느끼는 독특한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처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나눔으로 인해 불안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유사체험의 교육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의해 부정적 영향으로 생각되는 노화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후속프로그램으로서 소감나누기를 적용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노인유사체험 후 노화불안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한 노인유사체험과 소감나누기가 간호대학생의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3.1 노인유사체험

노인의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 및 신체적 기능 저하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복을 착용하고 지정된 활동을 수행하여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상태를 경험하도록 돕는 과정[16]으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위치한 노인생애체험센터에서 노인체험복을 입고 경험한 활동을 의미한다.

3.2 노화불안

노화불안은 노화에 따른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불안을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이며[17], 본 연구

에서는 Lasher와 Faulkender(1993)[17]의 노화불안측정도구(Anxiety Aging Scale;ASA)를 이용하여 측정된 값을 말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한 노인유사체험과 소감나누기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단일실험군 전후설계인 유사실험 연구이다[그림 1].



그림 1. 연구설계

2. 연구도구

노화불안은 Lasher와 Faulkender(1993)[17]의 노화불안측정도구로 측정하였다. 이는 노인에 대한 두려움(Fear of Old People) 5문항, 심리적 걱정(Psychological Concern) 5문항, 신체적 외모불안(Physical Appearance) 5문항, 상실에 대한 두려움(Fear of Losses) 5문항 등 총 4개의 하위요인, 20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1점 “매우 그렇다”, 2점 “그렇다”, 3점 “보통이다”, 4점 “아니다”, 5점 “전혀 아니다”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불안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높도록 하기 위해 8개 문항은 역산 처리하였다.

4개 요인을 살펴보면, “노인에 대한 두려움”은 노인들에 대한 수용정도, 관계형성, 친밀감 형성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심리적 걱정”은 노인이 되었을 때 만족감, 행복감, 성취감에 대한 확신정도를 측정한다. “신체적 외모불안”은 노화에 대한 수용정도 및 나이 많은 노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수용정도를 측정하고 “상

실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적 지지와 자율성의 상실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조사자료를 이용한 도구의 신뢰도 분석에서 Cronbach’s alpha는 “신체적 외모불안”요인에서 “나는 나이가 들면 더 젊게 보이기 위해 나이를 속일 것 같다”와 “상실에 대한 두려움”요인에서 “내가 아주 늙어서 내 대신 다른 사람이 내 일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다”가 신뢰도 계수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이 두 문항을 제거한 다음 산출되었다. 실험 전(후)의 이 두 요인의 Cronbach’s alpha 값은 각각 .58(.81), .59(.61)이었다. Cronbach’s alpha 값은 원도구에서 전체가 .86, 노인에 대한 두려움 .78, 심리적 걱정 .74, 신체적 외모불안 .71, 상실에 대한 두려움 .69이었다. 문항을 제거한 후 최종 Cronbach’s alpha 값은 실험 전(후) 전체 .80(.89), 노인에 대한 두려움 .87(.92), 심리적 걱정 .72(.77), 신체적 외모불안 .65(.86), 상실에 대한 두려움 .64(.64)이었다.

3.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청북도 소재 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학생 57명으로 노인체험복 경험이 처음이었으며 사후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하고 56명이 최종분석에 포함되어 탈락률은 1.75%이었다.

4. 자료수집 기간 및 절차

자료수집 기간은 2011년 3월 29일부터 2011년 4월 14일까지였다. 대상자에게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고, 연구참여와 성적과는 무관하며, 자유의지에 따라 연구참여 및 철회가 가능할 뿐 아니라 설문지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알려 준 뒤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본 연구의 대상자가 되었다.

노인유사체험 전에 일반적 특성을 파악함과 더불어 노화불안에 대한 사전조사(1차 시점)를 하였다. 노인유사체험은 12-15명을 한 팀으로 하여 총 4회에 걸쳐 서울에 위치한 노인생애체험센터에서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되었다. 체험이 종료된 후 노화불안에 대한 2차 질문지 조사(2차 시점)가 이루어졌다.

노인유사체험 경험을 마친 후에 학생들로 하여금 노

인유사체험 경험을 깊이 생각하고 그 느낌을 정리할 수 있도록 1주일의 기간을 주었으며, 미리 노인유사체험과 관련된 개방형 질문지를 주어 체험 관련 소감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소감나누기는 노인유사체험 1주일 후에 약 30분 정도 실시하였으며 소감을 나눈 후 노화불안에 대한 3차 질문지 조사(3차 시점)가 이루어졌다. 1차 조사 후 2차 조사, 3차 조사까지의 기간은 각각 5-10일 소요되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및 노인관련 특성은 평균과 표준편차, 실수 및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노화불안의 하위영역과 문항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실험 전과 후 노화불안의 차이는 Repeated Measures ANOVA로 분석하였으며, 1차 시점과 2차 시점, 2차 시점과 3차 시점간 노화불안 점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Bonferroni 방법으로 검정하였다. 시점간 분석은 유의수준을 5%로 설정한 후, 1차와 2차 시점, 2차와 3차 시점 간 분석의 2회 비교를 하므로 실제 .025로 하였다.

6. 실험처치

6.1 노인교육

대상자는 노인체험복 경험에 앞서 감각스런 신체 노화 경험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험처치 1주일 전에 C시 소재 대학교 간호학과 실습실에서 약 20분 정도 신체적 노화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

노인교육은 본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으며, 노화이론, 신체적 노화, 신체적 노화로 인한 건강문제에 대한 30여장의 슬라이드로 구성된 자료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6.2 노인체험복 경험

노인체험복 경험은 서울시에 위치한 노인생애체험센터를 방문하여 이루어졌으며 센터에서는 체험센터 공간크기를 고려하고 지정된 체험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체험인원을 15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를 12-15명으로 나누어 4

개 팀으로 구성하여 총 4회에 걸쳐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노인유사체험을 진행하였다. 각 회마다 노인유사체험 경험 시간은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교육을 받은 센터의 직원인 주 진행자 1명과 보조진행자 2명이 체험과정을 지도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체험에 앞서 사전교육으로 노인의 특성, 노화과정에 대한 이해, 체험과정 및 체험복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체험복을 착용하였다.

체험복은 일본의 Koken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등보호대, 팔꿈치 억제대, 무릎억제대, 모래주머니(손목용 1쌍, 발목용 1쌍), 장갑, 귀마개, 안경, 지팡이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대상자는 노인체험복을 착용한 후에 주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현관체험, 부엌체험, 거실체험, 욕실체험, 감각체험, 안방체험, 보행체험의 활동을 하였다.

6.3 소감나누기

노인유사체험을 종료한 후 5-10일 사이에 3팀으로 나누어 노인유사체험 경험에 대한 소감나누기를 진행하였다. 각 팀은 18명, 19명, 20명으로 구성되었고 소감나누기에 소요된 시간은 각 팀마다 30분 내외였다. 소감내용은 노인유사체험 경험 후 미리 주제를 주어 노인유사체험 경험과정을 충분히 생각하고 노화불안 측정 질문지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더불어 소감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소감문은 구체적으로 9개 질문을 제시하여 작성토록 하였다. 이들 질문영역은 평소 노인에 대한 느낌, 체험 후 노인에 대한 태도나 이해수준의 변화,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노인들의 행동이나 모습과 체험복장 착용 후 행동 및 모습의 차이, 신체적 불편감 등 체험의 느낌, 체험복 경험 후 노인을 대하는 행동 변화, 자신의 노후에 대한 생각, 노인을 돕기 위한 환경이나 개선책에 대한 생각, 노인간호 실습에 임할 때 자세, 노인유사체험 후 소감나누기가 갖는 의미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자신의 노후에 대한 생각을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 특성

대상자는 여성이 49명(87.5%), 평균연령은 19.3세이

고 19세 이하가 40명(71.4%), 종교가 없는 군이 38명(67.9%)이었다. 노인과의 동거경험은 22명(39.3%)이 과거에 동거한 경험이 있었으며, 조사당시 노인과 동거하고 있었던 대상자는 2명(3.6%)에 불과하였다. 노인관련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과거와 현재를 합쳐 33명(59.0%)이었다. 또한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는 37명(66.1%)이 보통이었고, 6명(10.7%)이 많은 편으로 응답하였다. 졸업 후 노인간호 종사의향에서는 13명(23.2%)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노인유사체험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한 명도 없었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및 노인관련 특성 (N=56)

특성	범주	실수(%)
성별	여성	49(87.5)
	남성	7(12.5)
연령	19세 이하	40(71.4)
	20세 이상	16(28.6)
종교	있음	18(32.1)
	없음	38(67.9)
노인동거경험 (과거)	있음	22(39.3)
	없음	34(60.7)
노인동거경험 (현재)	있음	2(3.6)
	없음	54(96.4)
노인관련 자원봉사 경험	현재	10(17.9)
	과거	23(41.1)
	없음	23(41.1)
노인문제 관심	없음	13(23.2)
	보통	37(66.1)
	많은 편	6(10.7)
노인간호 종사의향	없다	6(10.7)
	그저 그렇다	37(66.1)
	있다	13(23.2)
노인유사체험 경험	있다	0(0.0)
	없다	56(100.0)

2. 소감나누기 내용

학생들은 미리 준비한 보고서를 가지고 자신의 느낌을 발표하였다.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56명중에서 1명은 자신의 노후를 “꿈과 목표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것 같다”라는 긍정적으로 전망하였으며 8명은 자신이 노화를 부정적으로만 기술하였다. 12명은 노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이에 대하여 건강관리와 노

후대책 마련 같은 의지를 보였다. 나머지 38명은 노후에 대한 정서적 느낌보다는 자신의 노후에 대비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다.

자신의 노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표현은 “너무 두려웠다”, “더 두려워졌다”, “노후생활이 걱정이 된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졌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살아갈까봐 두렵고 걱정이 앞선다”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시각에 노후대비 의지를 나타낸 경우는, “무섭고 두렵다. 늙어간다는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해서 좀 더 늦게 늙어야겠다”, “노인이 되기 너무 싫다. 편리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비용을 준비하고 건강증진에 힘써야겠다”, “불편하고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보조기구처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많이 찾아 철저히 대비를 해야겠다”, “불편함을 느꼈지만 노후에 남들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다. 노인용 식기나 물품들을 많이 사용해야겠다”, “앞이 잘 안보이고 흰머리가 되고 몸이 무거워진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앞으로 운동 등으로 나의 몸과 마음을 열심히 가꾸어 천천히 노화를 경험하고 싶다” 등이다. 이외의 노년기의 신체적 불편감에 대한 체험활동 후에 노후를 대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로서 건강관리, 영양, 운동, 금전적인 비축, 노인용품과 보조기구 사용, 집의 시설 갖추기 등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3. 노화불안에 대한 영향

5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노인에 대한 두려움의 전체 점수는 노인유사체험 전 평점평균 3.24점으로서 보통과 많다의 사이에 위치하였다. 체험 후, 소감나누기 후 평점평균이 각각 3.23점과 3.12점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들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7.830, p=.001$). 시점별로 보면, 체험 후와 소감나누기 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p=.001$). 노인에 대한 두려움 요인의 항목별 점수 변화는 체험 전과 체험 후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체험 후와 소감나누기 후의 두 시점간 유의한 차이는 2개 항목에서 나타났다. 소감을 나눈 후에 나는 노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가 3.18점에서 3.04점으로 감소되었으며($p=.010$), 나는 나이가 많은 노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좋아한다가 3.16점

에서 2.96점($p=.015$)으로 감소되었다.

심리적 걱정은 5개 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점수는 노인유사체험 전 평점평균 2.80점으로서 보통보다 적은 방향에 위치하였다. 체험 후, 소감나누기 후 항목별 평균이 각각 2.80점과 2.87점으로 소감나누기 후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F=.937, p=.395$). 항목별 시점 간 평균치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신체적 외모불안은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점수는 노인유사체험 전 평점평균 3.48점으로 보통과 많다의 사이에 위치하였다. 체험 후, 소감나누기 후 항목별 평균이 각각 3.48점과 3.47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F=.008, p=.992$). 나는 늙어가는 것에 대해 상상해도 전혀 걱정스럽지 않다는 항목은 체험 전 3.48점에서 체험 후 3.79점으로, 소

감나누기 후 3.86점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시점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F=4.344, p=.015$), 체험전과 후 차이, 체험 후와 소감나누기 후의 평균점수 차이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4개 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점수는 노인유사체험 전 평점평균 3.24점으로 보통과 많다의 사이에 위치하였다. 체험 후, 소감나누기 후 항목별 평균이 각각 3.37점과 3.32점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이들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429, p=.244$). 항목별로 보면, 나는 늙으면 내 주위의 친구들이 사라질까 두렵다가 체험 전 2.93점, 체험 후 3.16점, 소감나누기 후 3.25점으로 불안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이었으며($F=10.709, p<.001$), 이들 시점 중에서 체험 전에 비해 체험 후의 증가가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표 3].

표 2. 노인에 대한 두려움과 심리적 걱정의 시점 간 변화 (N=56)

변수	T1	T2	T3	T1, T2, T3 F(p) [†]	T1-T2 (p)	T2-T3 (p)
	Mean(SD)	Mean(SD)	Mean(SD)			
노인에 대한 두려움	3.24(.67)	3.23(.69)	3.12(.73)	7.830(.001)	.835	.001
나는 노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3.21(.83)	3.18(.90)	3.04(.83)	4.981(.010)	.642	.010
나는 나이 많은 친척을 방문하는 것을 즐긴다.	3.29(.88)	3.30(.93)	3.18(.88)	1.692(.194)	.855	.090
나는 노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3.09(.88)	3.09(.82)	3.09(.90)	.000(>.999)	>.999	>.999
나는 노인과 함께 있는 것이 매우 편안하다.	3.45(.74)	3.43(.78)	3.32(.72)	1.610(.205)	.830	.109
나는 나이가 많은 노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좋아한다.	3.18(.79)	3.16(.71)	2.96(.85)	3.382(.038)	.841	.015
심리적 걱정	2.80(.57)	2.80(.57)	2.87(.57)	.937(.395)	>.999	.210
나는 노인이 되면 만족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아 두렵다. *	3.27(1.04)	3.11(.97)	3.16(1.04)	.931(.394)	.210	.626
나는 늙어서도 할 일이 많은 것이다.	2.64(.72)	2.75(.75)	2.79(.87)	1.275(.284)	.261	.674
나는 늙은 후에도 삶이 만족스러울 것으로 생각한다.	2.88(.88)	2.84(.80)	2.93(.91)	.354(.702)	.727	.374
나는 늙어서도 내 일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59(.68)	2.68(.61)	2.71(.91)	.561(.572)	.428	.771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내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할 것 같다.	2.64(.82)	2.64(.84)	2.77(.91)	.995(.376)	>.999	.163

* 역산문항; [†]Repeated Measures ANOVA; T1=노인유사체험 전; T2=노인유사체험 후; T3=소감나누기 후.

표 3. 신체적 외모불안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의 시점 간 변화 (N=56)

변수	T1	T2	T3	T1, T2, T3 F(p) [†]	T1-T2 (p)	T2-T3 (p)
	Mean(SD)	Mean(SD)	Mean(SD)			
신체적 외모불안	3.48(.67)	3.48(.81)	3.47(.84)	.008(.992)	.152	.872
나는 늙어가는 것에 대해 상상해도 전혀 걱정스럽지 않다.	3.48(1.01)	3.79(.93)	3.86(.96)	4.344(.015)	.052	.484
나는 나이가 들어 흰 머리가 생기는 것에 대해 전혀 두렵지 않다	3.54(1.08)	3.38(1.15)	3.29(1.17)	2.782(.066)	.172	.322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아주 늙은 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대해 두렵지 않다.	3.41(.89)	3.23(.91)	3.27(.90)	1.204(.304)	.151	.719
나는 나이가 들어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는 일이 괴로울 것 같다.*	3.48(.87)	3.54(.93)	3.48(.99)	.121(.881)	.644	.644
상실에 대한 두려움	3.24(.67)	3.37(.69)	3.32(.67)	1.429(.244)	.105	.513
나는 늙으면 내 주위의 친구들이 사라질까 두렵다.*	2.93(.98)	3.16(.61)	3.25(1.01)	10.709(<.001)	<.001	.374
나는 늙은 후에 건강이 몹시 걱정된다.*	3.70(.97)	3.91(.84)	3.86(.96)	1.668(.193)	.096	.666
나는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3.18(1.01)	3.25(1.08)	3.16(.97)	.259(.772)	.576	.505
나는 늙으면 인생에 별다른 의미가 없어질까 두렵다.*	3.34(.92)	3.14(.96)	3.02(.92)	2.937(.057)	.144	.290

* 역산문항; [†] Repeated Measures ANOVA; T1=노인유사체험 전; T2=노인유사체험 후; T3=소감나누기 후.

IV. 논의

노인을 이해하고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과의 경험이 중요하며[18], 간호대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노인을 경험할 수 있는 경로는 노인관련 교육, 노인시설 방문, 노인간호 실습, 노인관련 봉사활동 등 다양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노인유사체험은 체험자로 하여금 신체적 노화체험의 경험을 통해 노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19]에서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유사체험을 적용한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교육과정에 도입하기에 긍정적인 프로그램으로 제시하였다[11][14]. 한편, 선행연구에서 체험자들은 노인유사체험 후 갑작스런 신체적 노화를 경험하면서 불편감과 이에 대한 두려움 등의 부정적 느낌을 표현하였으나[7][8][13][14][20-22],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체험 후 소감문 작성이외에 부정적인 정

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중재전략을 적용하지 않아 충분한 교육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노인유사체험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으로 노화불안을 지적할 수 있다. 노화불안은 노화과정과 관련된 걱정이 나타난 불안상태로[23] 노인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15][24], 노인유사체험 후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14].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인유사체험 후 소감문을 작성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작성한 소감문을 나누는 집단토의를 운영하여 체험경험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언급한 소감으로 노화불안에 대한 부정적 정서에 더하여 교내에서 체험복을 착용하여 활동을 구성한 선행연구에서는[14] 건강관리, 자기관리를 언급하는데 그쳤으나 본 연구에서는 노인용품, 보조기 사용, 집 내부에 편리한 시설 갖추기, 경제적 대비 등이 추가

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체험이 노인의 기능 장애를 보완하는 물품과 시설을 갖춘 공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노화불안 정도는 본 연구대상자들의 1차 시점에서 보면 5개 대학의 여러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김옥의 국내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25] 본 연구의 요인별 평점평균 2.80-3.48은 2.51-2.98보다 높아 노화불안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옥의 대상자 특성별 노화불안 정도를 분석한 결과에 비추어, 본 연구대상자들의 연령이 2학년만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여학생의 비율이 훨씬 많은 점, 종교가 없는 비율이 더 높은 점, 노인대상 봉사경험이 없는 비율이 더 높은 점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4가지 노후불안 요인 중에서 심리적 걱정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국내 성인대상 연구[26]에서 20대 대상자에 대한 결과와 미국과 독일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27]와 일치한다. 특히 후자의 연구에서 독일 대학생들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요인이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에, 미국대학생들은 신체적 외모불안이 가장 크게 나타나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 대상 연구결과는 미국대학생에서 관찰된 결과와 일치했다. 특히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신체적 외모의 연령관련 변화에 더욱 민감했다는 보고[27]에 비추어 본 연구대상자의 87.5%가 여자인 점이 신체적 외모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선행연구의 보고에 비추어 노인유사체험은 노화불안에 대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여 체험 후 학생들은 노화불안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노화불안 척도의 4개 요인 모두 전체점수에서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정된 노화불안 도구의 내용이 노인에 대한 두려움을 제외하고는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을 생각하여 판단하게 하는 것이므로 노년기에 도달하기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있는 청년기의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노년기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의 체험공간은 노인의 기능저하를 보완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가 갖추어져 있으므로 체험자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느낌과 노후대

비에 대한 의지가 소감나누기를 통해 공유됨으로써 상승된 노화불안 정도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요인별 전체 점수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본 연구와는 달리, 선행연구[16]에서는 40-64세의 중년기 성인에게 노인생애체험을 제공한 후 측정한 노화불안에서는 4개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노화불안 전체 점수가 평점평균 3.47점에서 3.06점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노화불안 4개 요인 모두에서 체험 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노화불안 요인 중에서 외모에 대한 걱정을 제외하고 노인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걱정, 상실에 대한 두려움의 3개 요인 모두에서 체험 전에 비해 체험 후 불안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여 노인유사체험이 노화불안 정도를 낮춘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중년기 성인의 경우도 간호대학생과 마찬가지로 노인유사체험이 노화에 따른 신체적 이해는 물론 긍정적 인식과 공감적 이해에 도움을 주었으나[16], 중년기 성인은 간호대학생과는 달리 노년기를 가까운 시일에 맞이할 연령집단이며 노화가 노년기에만 시작되는 것은 아닌, 생애 전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연속적 현상이므로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신체적 노화현상과 가까운 주위사람들을 통해 객관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상황도 많을 것이므로 생활체험, 감각적 체험, 거실 체험 등의 노인유사체험 후 막연하게 걱정했던 일들이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더욱 현실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통해 수용하게 됨으로써 간호대학생보다 훨씬 심각하게 체험 결과를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인별 전체 평점평균을 비교해보면, 심리적 걱정을 제외하고 노인에 대한 두려움, 신체적 외모불안, 상실에 대한 두려움의 평균점수는 대부분 보통과 많은 정도 사이에 위치하였다. 이들 후자의 세 요인 중에서는 신체적 외모불안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외모는 노인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적어도 주변 환경에서 눈에 많이 뜨일 뿐 아니라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16]에서도 외모에 대한 걱정이 평균 3.78로서 4개 요인 중에서 가장 높은 불안도를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와는 달리 심리적

걱정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 노인에 대한 두려움 보다 높은 불안 정도를 보였다.

항목별로 보면, 노인유사체험 후 불안정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유일한 항목으로서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 속하는 “나는 늙으면 내 주위의 친구들이 사라질까 두렵다”는 항목이었다. 이 항목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의 항목별, 시점별 관찰에서 체험 전 평균점수가 유일하게 보통인 3점보다 적은 2.93점이었으나 체험 후 보통을 초과하는 3.16점으로 상승하였고 소감나누기를 수행한 후에는 3.25점으로 약간 더 상승한 양상을 보인다. 이들 증가양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친구는 청년기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존재로서 본 연구대상자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으로 인해 심각하게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른 문항보다 친구의 상실을 언급한 문항이 더욱 실제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며, 이러한 느낌은 친구들과의 소감나누기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감나누기에서는 학생들에게 친구 상실에 대처하는 노년기의 성공적인 적응 모습을 그려볼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심리적 걱정에서 평균점수가 보통을 약간 초과한 “나는 노인이 되면 만족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아 두렵다” 항목을 제외한 점수는 모두 3점 미만으로 보통보다 적은 정도의 불안정도로 나타났다. 심리적 불안은 개인적이고 내적인 문제에 관한 것으로 개인이 노화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적응을 하기 위해 당면해야 할 심리적 과제로서[24], 인생의 청년기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이 노년기의 심리적 과제를 느끼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소감나누기를 한 후 불안정도가 변화한 유일한 요인은 노인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항목별로는 “나는 노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와 “나는 나이가 많은 노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좋아한다”의 두 항목에서 소감나누기 후에 불안정도가 감소하였다. 노인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요인들과 달리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타인에 대한 지각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두려움, 노인들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특성과 질을 사정하는 것[24]이다. 노인유사체험의 유일

한 효과는 노인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증가한다는 것[7][8][14]을 생각할 수 있다. 노인에 대한 두려움은 중년기 성인의 경우 노인유사체험 전과 후에 모두 불안정도가 보통인 3점보다 유일하게 낮았던 노화불안 요인이었으나[16], 본 연구에서는 실험 전 신체적 외모에 대한 두려움 다음으로 불안정도가 높은 요인이었다. 이는 평균연령이 52.8세인 연구에 참여한 중년기 성인은 생활에서 노인과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하고 있을 것이므로 다른 노인들과의 교류와 친밀감 등을 측정하는 불안의 정도가 높지 않지만[16],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은 건강하고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평소 자신의 노화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으로 생각하여 자연스러운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4], 노인을 낮설게 생각하며 이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친밀감은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28] 노인에 대한 불안이 감소한 것은 소감을 나누는 활동이 노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친밀감을 높여 노인과의 상호관계에서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노인유사체험 단독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체험 소감을 나누는 활동을 함께 구성하여 교육과정 내에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고자 한다.

한편, 노인유사체험 후 노화불안을 파악한 연구가 드물 뿐 아니라 체험자가 중년기 성인[16]과 보건계열 학생[15] 뿐이었고, 후자의 연구에서는 태도와 노화불안을 함께 분석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 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노인간호학을 학습하기 이전 단계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로서 성공적인 노년기의 삶에 대해 그려보기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간호대상자들을 포함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노인유사체험 후 소감을 나누는 활동에 대해 대학생들에게 노화에 대한 정보제공 프로그램에서 긍정적인 발언에 대한 강화를 받은 집단에서의 노인차별에 대한 향상된 태도가 유지되었다는 보고에 비추어[29], 참여 학생들의 긍정발언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며, 노년기의

정상노화 과정에 의해 피할 수 없는 기능저하와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노인의 모습이 모델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서, 사용된 노화불안 특정도구는 노인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걱정, 신체적 외모불안, 상실에 대한 두려움의 네 요인으로 구성된 20개 항목이었다. 원 도구가 신뢰도계수가 높지 않았으나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선행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선정하였다. 추후 도구의 신뢰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대조군이 없는 실험군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중재가 제공되지 않은 대조군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점이 있다.

V. 결론 및 제언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한 노인유사체험과 소감나누기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단일 집단 전후설계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개 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학생 56명이 노인유사체험과 체험 후 소감나누기에 참여하였다. 노인의 기능감소를 보완하는 기구와 설비가 갖추어진 체험관에서 진행된 노인유사체험은 대체로 청년기의 대학생에서 일반적인 노화불안을 상승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실불안에 해당하는 항목인 늙으면 주위의 친구들이 사라질까 두렵다는 항목에서 노인유사체험 후 유일하게 불안도가 상승하였다. 체험 후의 소감나누기 활동은 노인에 대한 두려움 요인의 전체 점수와, 노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 나이가 많은 노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에서 불안 감소를 보여 긍정효과를 나타냈다. 체험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집단토의는 교내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노화불안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감안하여 노인유사체험 후에는 소감을 나누는 활동이 함께 제공되는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대상자와 노인유사체험이 노인의 신체적 노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노화의 신체적 측면과 관련된 노화불안척도를 사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1] 주선옥,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비교",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2] 김정희, "간호학생들의 노인 태도에 대한 노인간호학 이론과목의 단기효과", 노인간호학회지, 제10권, 제2호, pp.173-181, 2008.
- [3] 최경애,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4] 박경란, 이영숙, "청소년과 중년이 갖고 있는 노인의 고정관념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9권, 제6호, pp.221-239, 2001.
- [5] E. Schwalbach and S. Kiernan, "Effects of an intergenerational friendly visit program on the attitude of fourth graders toward elders," *Educational Gerontology*, Vol.28, No.3, pp.175-187, 2002.
- [6] 고은교, 정민숙,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 아동이 지각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11호, pp.323-337, 2008.
- [7] 유수정, 김신미, 이윤정, "노인유사체험이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제34권, 제6호, pp.974-98, 2004.
- [8] 최수원, "노인유사체험이 노인병동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업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9] J. T. Pacala, C. Boulton, and K. Hepburn, "Ten years' experience conducting the aging game workshop: was it worth it," *Educational Gerontology*, Vol.54, pp.144-149, 2006.
- [10] D. Batson, M. P. Poly, E. Harmon-Jones, H. J. Imhoff, E. C. Mitchener, L. L. Bednar, T. R. Klein, and L. Highberger, "Empathy and attitudes: can feeling for a member of a stigmatized group improve feeling toward the 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Vol.72, No.1, pp.105-118, 1997.
- [11] 백성희,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긍정적 태도변화를 위한 노인유사체험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3권, 제1호, pp.5-12, 2007.
- [12] P. Varkey, D. S. Chutka, and T. G. Lesnick, “The aging game: improving medical students’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Directors Association*, Vol.7, No.4, pp.224-229, 2006.
- [13] 김영옥, “노인유사체험이 임상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 및 노인돌봄 태도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14] 정혜선, 김응중, 김정희, “간호대학생의 노인체험 복 착용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30권, 제1호, pp.141-157, 2010.
- [15] W. Henry, C. Douglass, and I. M. Kostiwa, “Effects of participation in an aging game simulation activity on the attitudes of allied health students toward older adults,” *The Internet Journal of Allied Health Sciences and Practice*, Vol.5, No.4, pp.1-9, 2007.
- [16] 이유리, “노인생애체험이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에 미치는 효과”, 노인복지연구, 제46권, pp.193-214, 2009.
- [17] K. P. Lasher and P. J. Faulkender,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development of the anxiety about aging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37, No.4, pp.247-259, 1993.
- [18] 이가옥, 이지영, 이미진, 김연순, “세대통합프로그램을 통한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인식변화와 자기성찰 - 휴대전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39권, pp.79-110, 2008.
- [19] S. Eymard, B. D. Crawford, and T. M. Keller, “Take a walk in my shoes”: Nursing students take a walk in older adults’ shoes to increase knowledge and empathy,” *Geriatric Nursing*, Vol.31, No.21, pp.37-141, 2010.
- [20] 강인, “노인 유사 체험(Senior Simulation)이 노인과 체험자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제19권, pp.7-30, 2003.
- [21] 안병운, “노인유사체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지식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22] 최경옥, 김상곤, 윤은주, 이명숙, 임한영, 김순자, 이병순, 김예성, “노인유사체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안산대학 논문집, 제24권, pp.377-395, 2006.
- [23] 김순이, “일 지역 노인의 노화불안에 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1권, 제1호, pp.7-15, 2005.
- [24] 박현숙, “여고생의 노화지식 및 노화불안이 노인 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25] 김옥, “대학생의 노화불안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26권, pp.27-56, 2011.
- [26] 최순옥, 김숙남, 신경일, 이정희, “일부 지역 성인의 노후불안”, 한국노년학, 제28권, 제1호, pp.19-32, 2008.
- [27] J. T. McConatha, F. Schnell, K. Volkwein, L. Riley, and E. Leach, “Attitudes toward ag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young adults from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57, No.3, pp.203-215, 2003.
- [28] 차은진, 김경호,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호남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pp.233-254, 2010.
- [29] M. Ragan and A. M. Bowen, “Improving attitudes regarding the elderly population: the effects of information and reinforcement for change,” *The Gerontologist*, Vol.41, No.4, pp.511-515, 2001.

저 자 소 개

정 혜 선(Hye-Sun Jeong)

정회원



- 1991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사)
- 1996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간호학석사)
- 2001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간호학박사)
- 2010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교육학석사)
- 2010년 7월 ~ 현재 : 청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노인에 대한 태도, 공감, 건강증진

한 종 숙(Jong-Sook Han)

정회원



- 1979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사)
- 1985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간호학석사)
- 2006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간호학박사)
- 1999년 3월 ~ 2010년 2월 : 적십자간호대학 겸임교수, 전임강사
- 2010년 3월 ~ 현재 : 적십자간호대학/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 정신건강, 의사소통

김 정 희(Jung-Hee Kim)

정회원



- 1979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사)
- 1982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석사)
- 1987년 5월 :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노인학석사)
- 1993년 12월 : University of Michigan(이학박사)
- 1995년 3월 ~ 현재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치매노인, 노인환경, 호스피스